

나주시, 농가·근로자 상생 방안...탄력적 인건비 운영

농촌인력 심의위원회 11만원 제시
물가상승률 근로 환경 종합 고려
지역 농업 생산성 향상 도모 목표
일손 부족 해소 계절근로자 도입

나주시가 올해 농촌인력 인건비 심의위원회를 열고 농촌근로자의 하루 인건비 기준금액을 11만원(단순 노무, 8시간 기준)으로 제시했다.

나주시는 최근 농가와 근로자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25년 농촌인력 인건비 심의위원회'를 열었다고 8일 밝혔다.

농촌인력 인건비 심의위원회는 2023년 8월에 제정된 나주시 농촌인력 적정 인건비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매년 농촌 노동력 정책과 인건비 조정을 논의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인 안상현 나주시 부시장을 비롯해 나주시의원, 농촌인력중

개센터, 농업인단체 관계자와 함께 인력 소개소대표 및 노무 전문가 등 총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회의에서는 농촌인력 임금 동향과 물가상승률, 근로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 인건비 기준과 외국인 불법 체류자의 근로문제도 함께 논의했다.

이번 결정도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난해 첫 시행 당시 농촌 인건비 상승을 억제해 농가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이에 따라 올해도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농작업의 난이도에 따라 농가가 인건비를 자율적으로 가감 적용해 근로자와 농가 간 상호 협력을 유도하고 현실적인 노동 대가를 반영하며 농업 생산성 향상을 도모했다.

안상현 나주시 부시장은 "농촌의 안정적인 발전과 지속적 농업을 위해 제시된



최근 나주시가 '농촌인력 인건비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나주시 제공

적정 인건비는 농가와 근로자 간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며 "농민과 근로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농촌인력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나주시는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

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올해 목표는 800명으로 이 중 660명을 영농철이 집중된 상반기에 배치해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나주-김용의 기자



'4-H회 한마음 단합대회' 개최 함평군, 농업인 상호 교류 등

지역 청년 농업인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제2회 함평군 4-H회 한마음 단합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함평군은 지난 4일 '함평군 4-H회 한마음 단합대회'가 함평군농업기술센터에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고 8일 밝혔다.

4-H는 명석한 머리(Head), 충성스러운 마음(Heart), 부지런한 손(Hands), 건강한 몸(Health)의 약자로 이날 행사는 한국4-H함평군본부와 함평군4-H연합회가 공동 주최했다.

행사에서는 '하나 되는 4-H! 함께 하는 4-H!'를 주제로 4-H의 이념인 '지(知)·덕(德)·노(勞)·체(體)'를 실천할 수 있는 협동심 강화 게임, 지도력 배양 교육, 체육 활동 등 청년 농업인의 상호 교류와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정유한 함평군4-H연합회장은 "단합대회를 통해 회원 간 유대감을 강화하고 농업의 미래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며 "청년 농업인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함평군4-H회는 지역 농업 발전의 핵심 주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창조적 미래세대 육성에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함평-신재현 기자

미래교육재단 임원 공개 모집 영광군, 상임이사 1명·이사 9명 등

영광군은 '지역이 함께 키우는 교육, 배움과 성장으로 지속가능한 영광'을 위해 설립될 예정인 재단법인 영광군미래교육재단의 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공모 직위와 인원은 상임이사 1명, 이사 9명, 감사 1명이다.

상임이사는 교육 관련 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 경력자, 교육·청소년·경영 분야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경영·조직 능력을 갖춘 15년 이상 경력자 등이다.

이사는 장학사업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자, 교육 및 장학 분야에 풍부한 식견과 경험을 갖춘 자, 감사는 조직 운영 및 경영에 대한 감사 능력을 갖춘 자 등이 자격 요건이다.

지원 서류는 오는 23일까지 접수하고 이사와 감사는 서류심사, 상임이사는 서류·면접 심사 진행 후 5월 중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 누리집, 군 인구교육정책실 교육팀(061-350-4702)으로 문의하면 된다.

영광-김도운 기자

평생학습동아리 모집 담양군, 18일까지 접수

담양군이 군민의 학습 역량을 강화하고 배움을 통한 개인의 성장, 나눔문화 확산, 주도적인 교육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평생학습동아리를 모집한다.

8일 담양군에 따르면 평생학습동아리는 사교나 친목 모임이 아닌 '정해진 주제에 대한 학습과 토론'이라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월 1회 이상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자아 발전 및 재능 나눔 활동을 할 수 있는 단체를 뜻한다.

지원 금액은 팀별 100만원 내외이며 지원 항목은 강사비, 교재 및 재료비다.

담양군민으로 구성된 8명 이상의 성인, 가족 학습자들이 모여 활동하는 동아리라면 오는 18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담양군청 누리집 담양군평생학습정보방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담양군 인문학교육팀(061-380-3188)으로 문의하면 된다.

담양-신재현 기자



곡성군 어르신들이 치매 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곡성군은 오는 6월5일까지 총20회에 걸쳐 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곡성군 제공

곡성군, 치매 센터 프로그램 운영

곡성군 치매안심센터가 치매 환자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립곡성치유의숲과 함께 치매 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8일 곡성군에 따르면 치매 센터 프로그램은 지난달 24일부터 시작해 오는 6월5일까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진행하며 총 20회로 이뤄진다.

곡성군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경증 치매 환자 10여명을 대상으로 하며 참가

자들은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구성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국립곡성치유의숲에서 진행되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자연 속에서의 산책과 요가, 명상 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정서적 안정을 돕는다.

미술, 음악, 원예치료 등 다양한 인지 자극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참가자들의 치매 진행 속도를 늦추고 기억력 향상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췄으며 사전·사후 검사를 통해 참가자들의 인지능력 변화를 점검, 체계적인 관리와 맞춤형 돌봄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곡성군치매안심센터는 지역사회 내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치매 센터 외에도 다양한 치매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을 마련해 치매 환자들이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프로그램 참여 및 기타 문의 사항은 곡성군 치매안심센터(061-360-8983)로 문의하면 된다.

곡성-김대영 기자

담양군,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기한 운영

30일까지 신고·납부

담양군이 지난해 귀속 법인지방소득세와 관련해 납세자가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각 법인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군청 누리집에 게시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8일 담양군에 따르면 지역 내 사업장들은 2024년 12월 말 결산법인 소득에 대

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30일까지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청은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와 군청 재무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올해는 수출 중소기업 및 재난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 정책의 하나로 지난해 대비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기

업과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이 대표인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이 별도 신청 없이 3개월 직권 연장된다.

다만 연장 대상 기업이더라도 납부 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기한 내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본 법인은 별도의 신청을 통해 납부 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청 재무과(061-380-3282)로 문의하면 된다.

담양-신재현 기자

벌써 종자 소득 철저 당부 화순군, 병해충 예방 목적

화순군은 풍년 농사 첫걸음을 위해 벼 종자에서 전염되는 병해충을 방지할 수 있는 벌써 소득을 독려하고 현장 기술지원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화순군에 따르면 벌써 소득은 고품질 쌀 생산의 첫걸음으로 종자에서 월동하는 키다리병, 도열병, 벼잎선충 등 종자 전염성 병해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다.

대표적인 소득법으로 '친환경 온탕 소득'은 물과 종자의 비율을 10:1로 60도 온도에 10분간 담근 후 꺼내 냉수 처리하며, '약제 소득'은 적용 약제별 희석 후 30도 온도에 24-48시간 침지하는 방법으로 반드시 농약안전사용 지침을 준수하면서 사용해야 한다.

전년도에 병해충 피해가 컸거나 등숙기 잦은 비로 일부 수발아(수확 전 곡식의 이삭에서 낱알이 썩는 것) 현상이 있어 자가채종 종자를 사용하는 농가는 반드시 탈망 작업과 소금물기리기를 해 충실한 벌써를 선별 후 종자소득을 해야 한다.

류창수 화순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종자소득은 건전한 육묘를 위한 필수과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올바른 소득 방법을 지켜주길 바란다"며 "지역 중만생종 최적 이앙 시기인 6월1일 전후를 고려해 영농 계획 수립을 완료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종 기자